

2023. 5. 15.(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. 5. 14.(일)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 자료

담당부서 :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: 2매

교통정책과장	이 창 석	2133-2210
교통수요관리팀장	김 종 민	2133-2224
담 당 자	박 진 희	2133-2223

### 서울시, 5월 17일(수) 7시부터 남산1·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재개

- 단계별 현장중심 정책 효과 확인위해 실시한 ‘혼잡통행료 징수 잠시 멈춤’ 실험 종료
- 5월 17일(수) 7시부터 징수 정상 재개...징수시간은 평일 07시~21시, 주말·공휴일 무료
- 현수막 입간판 도로전광판 등 시민 안내 및 혼란 최소화, 소월길 등 우회도로 교통상황 확인 필요
- 효과 분석 6월 중 발표, 도심권 수요정책 연계해 방안 연구...23년 연내 최종 결정

□ 서울시가 정책효과 확인과 교통수요 관리 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개월간 시행한 ‘남산 1·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잠시 멈춤’ 실험을 종료함에 따라, 오는 5월 17일(수) 7시부터 양방향 징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.

○ 3월 17일(금)부터 5월 16일(화)까지 약 2개월간 단계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, 17일(수) 7시부터는 징수를 재개한다.

□ 혼잡통행료 징수 시간은 평일 7시부터 21시까지이며,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이다. 징수 대상 차량은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이다.

※ 징수시간 : 7시~ 21시(평일만 징수, 주말·공휴일 제외) / 혼잡통행료 : 2,000원

- 시는 두 달 간의 실험을 마치고 5월 17일(수)부터 혼잡통행료 양방향 징수가 다시 재개되는 만큼, 도로전광판, 현수막, 요금소 안내문, 입간판, 교통방송 등을 통해 안내하는 등 시민 홍보도 실시한다. 남산 1,3호터널, 인접 우회 도로인 소월길, 장충단로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진입 전 도로교통 상황 확인이 필요하다.
  
- 한편, 그간 효과분석에 대해서는 6월중 발표할 예정으로, 교통량 추이 등 결과를 근간으로 하여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도심권에서 추진중인 교통 수요관리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, 전문가 자문, 시민 의견수렴,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남산 1,3호 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'23년 연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.
  
-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“5월 17일 수요일부터 혼잡통행료 양방향 징수가 다시 재개되는 만큼,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 안내를 실시할 것”이라며 “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